

광주 무진기연, ‘K-원자력’ 유럽 수출 ‘숨은 주역’



한국 원자력 기술 수출 사상 첫 유럽 진출 사례였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기업인 무진기연도 사업에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원자로 부품설명하는 조성은 무진기연 사장.

무진기연 제공

발전설비 분야 ‘독보적 기술’
네덜란드 연구용원자로 완료
원자력연구원-중소기업 협력
설계 등 사업 초기부터 참여

한국 원자력 기술 수출 사상 첫 유럽 진출 사례였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OYSTER 프로젝트)’이 10여년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지역의 원전 설비 제작 전문 회사도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광주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OYSTER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원자로(2.3MW)의 빔튜브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심기기의 상세 설계와 기기 제작 단계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했다.

원전 설비 제작 전문 회사인 ㈜무진기연과 협력해 냉중성자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 시키는 ‘수조내 기기’와 냉중성자가 연구시설까지 도달하게 하는 통로인 ‘빔튜브’를 제작했다.

무진기연은 지난 1990년 설립한 무진 기계에서 출발해 현재는 원자력발전설비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기업이다.

원전설비 제작의 핵심인 세계 ‘탑 클래스(Top Class) 용접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에 원전 보조기기 6개 패키지를 수출했다.

조성은 ㈜무진기연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냉중성자 관련 설비를 만든 게 독일에 이은 두번째 성공”이라며 “우리나

라가 점차 앞서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현재 ㈜무진기연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분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연구용 원자로 개발에도 많이 참여해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 원자력연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해 지난 2015년 10월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이후 2017년 상세 설계, 기기 제작, 설치, 시운전을 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에 구축한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바이오·나노·신소재 등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은행, 법인 맞춤형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 가능한 ‘법인파트너적금’은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지난 23일 기준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 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이다.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

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권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박문수 데이터상품전략부장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반 기업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30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5	19	21	25	27	28	4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2억6330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560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중소조선연구원, 친환경 신소재 국제표준 개발한다

에코마린·대해선박기술과 협약

중소조선연구원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코마린, 대해선박기술과 함께 소형선박 친환경 신소재의 성능 검증 및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5일 부산 중소조선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소형선박 친환경 신소재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 개발 신소재 및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개발 및 보급·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HDPE 선박은 기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에 비해 발화 속도가 느리고 유독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화재에 더 안전하다. 또한, 폐선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다.

신혁선 책임연구원은 “이번 협약은 국내 소형선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에코마린, 대해선박기술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신소재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코마린은 중소조선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육성사업’ 해양분야의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코마린은 자사의 친환경 신소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성료

광주신세계가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이 4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2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은 실무경험을 쌓음으로써 지역대학과 기업의 협력모델로서 현지법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지역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프로그램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됐다.

총 11명의 학생들은 백화점 투어를 시작으로 신입사원 멘토링과 각 팀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백화점 내 영업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와 함께 조별 과제를 통해 유통업체에 대한 조별 발표를 진행해 학생들의 신선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실제 모의면접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인 만큼 호응이 높았다.

특히 수료식에는 학생들이 직접 각 부서마다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전달함으로써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나다운기자

금감원 Q&A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 단계별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문 A씨는 2024년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답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일명 꺾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유의사항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문 B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았다.

답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금융회사는 전체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는 추가 안내도 하고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소득증가,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문 C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시점이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정액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전환 등)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효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대출금 증가, 담보 변경 등),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

문 D씨는 담보대출 상환후 금융회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하였

으나, 10여년이 경과한 최근까지 근저당권이 계속 유지되어 재산권 행사 불가 등 손해가 발생했다.

답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란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약 5~8만원 수준)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